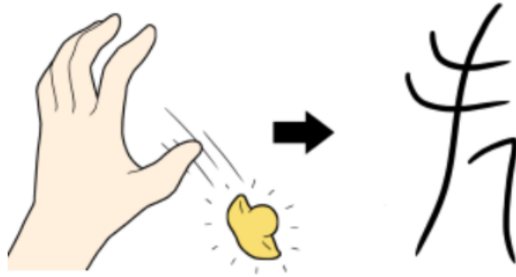


상형문자 ①



失

잃을 실

失자는 '잃다'나 '달아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失자는 夫(지아비 부)자에 획이 하나 그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失자는 夫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失자의 금문을 보면 手(손 수)자 옆에 획이 하나 𠂇 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 失자는 손에서 물건을 떨어트리 잃어버렸다는 의미에서 '잃다'라는 뜻을 갖게 된 글자이다.

𠂇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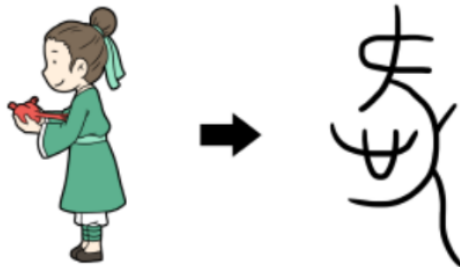
𠂇

소전

失

해서

회의문자 ①



愛

사랑 애

愛자는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愛자는 𠂇(손톱 조)자와 冫(뚝을 먹)자, 心(마음 심)자, 攴(천천히 걸을 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문에 나온 愛자를 보면 단순히 𠂇(목맬 기)자와 心자가 𠂇 결합한 형태였다. 이것은 사람의 가슴 부위에 심장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금문에서는 사람의 가슴에 심장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려서 '사랑하다'를 표현했다. 이러한 모습이 변하면서 소전에서는 마치 손으로 심장을 감싸 안은 것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𠂇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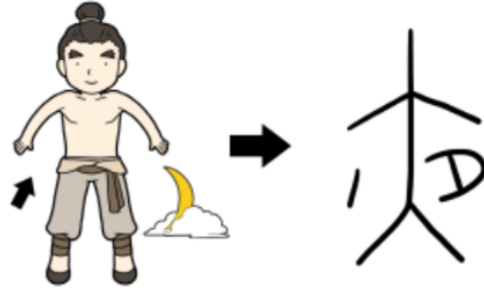
𠂇

소전

愛

해서

회의문자 ㉠



夜

밤 야

夜자는 '밤'이나 '저녁 무렵', '한밤중'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夜자는 夕(저녁 석)자와 亦(또 역)자와 결합한 모습이다. 亦자는 사람의 겨드랑이에 점을 찍어놓은 𠂔 모습을 그린 지사문자(指事文字)이다. 夜자는 이렇게 겨드랑이를 가리고 있는 亦자에 夕자를 더한 것으로 깜깜한 '어두움'을 뜻하고 있다. 금문에 나온 夜자를 보면 사람의 겨드랑이에 夕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달빛조차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움을 표현한 것이다.

𠂔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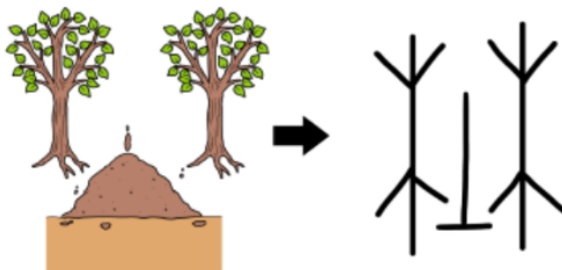
𠂔

소전

夜

해서

회의문자 ㉠



野

들 야

野자는 '들판'이나 '교외'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野자는 里(마을 리)자와 予(나 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予자는 실을 감는 '실패'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여→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野자의 갑골문을 보면 土(흙 토)자와 林(수풀 림)자가 결합한 埜(들 야)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흙과 나무가 많은 곳을 표현한 것으로 숲이 우거져 있는 '들판'이나 '교외'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전에서부터는 里자가 교외 지역의 의미를 대신하게 되었고 予자는 발음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野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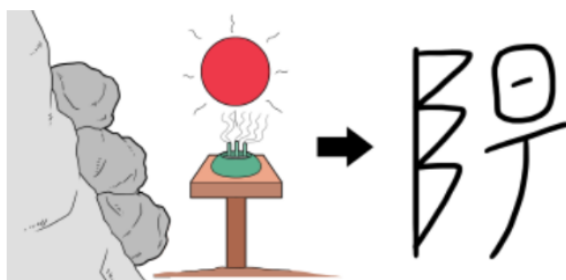
소전

野

해서

6
-
45

회의문자 ①



陽

별 양

陽자는 '양달'이나 '별', '낮'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陽자는 阜(β : 언덕 부)자와 易(별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易자는 햇별이 제단 위를 비추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별'이라는 뜻이 있다. 여기에 阜자까지 결합한 陽자는 태양이 제단과 주변을 밝게 비추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陽

갑골문

陽

금문

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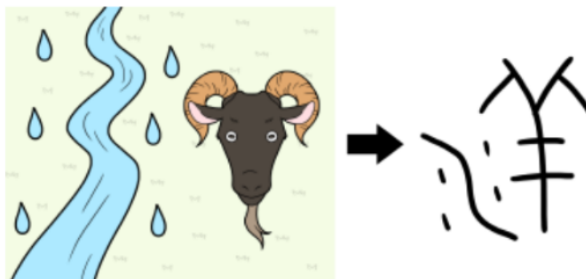
소전

陽

해서

6
-
46

회의문자 ①



洋

큰 바다
양

洋자는 '큰 바다'나 '서양', '외국'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洋자는 水(물 수)자와 羊(양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羊자는 양의 머리를 그린 것으로 '양'이라는 뜻이 있다. 洋자는 크게 무리를 지어 다니는 양의 특성을 응용한 글자로 '큰 바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바다를 뜻하는 海자와 기본적인 의미는 같지만 좀 더 큰 바다를 뜻하기 때문에 대서양(大西洋)이라고 하면 유럽, 아프리카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큰 바다를 일컫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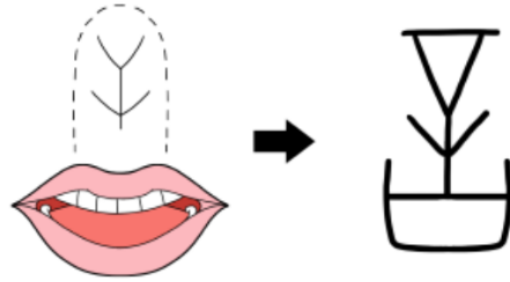
洋

소전

洋

해서

회의문자 ①



言

말씀 언

言자는 '말씀'이나 '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言자의 갑골문을 보면 口(입 구)자 위로 나팔과 같은 모양이 ㄱ 그려져 있었다. 이것을 두고 생황(笙簧)이라고 하는 악기의 일종을 그린 것이라는 설도 있고 나팔을 부는 모습이라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말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言자는 이렇게 입에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부수로 쓰일 때는 '말하다'와 관계된 뜻을 전달하게 된다. 참고로 갑골문에서의 言자는 '소리'나 '말'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래서 금문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여기에 획을 하나 그은 訢(소리 음)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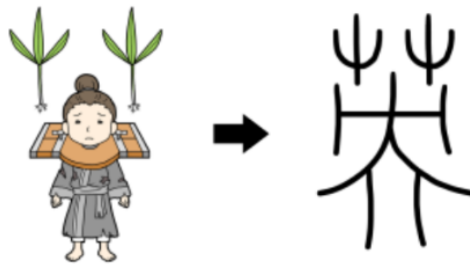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형성문자 ①



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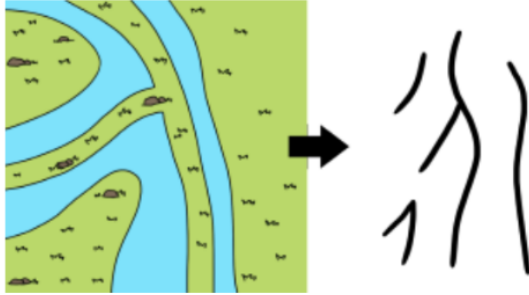
꽃부리
영

英자는 '꽃부리'나 '명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英자는 艹(풀 초)자와 央(가운데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央자는 '가운데'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양→영'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꽃부리는 꽃잎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식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艹자가 의미요소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英자는 본래 '꽃부리'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지만 지금은 주로 '명예'나 '뛰어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소전

해서

상형문자 ①



永

길 영

永자는 '길다'나 '멀다', '(시간이)오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永자는 氷(얼음 빙)자와 매우 비슷하게 보이지만, 뜻과 기원은 전혀 다르다. 永자의 갑골문을 보면 긴 물줄기가 굽이쳐 흐르는 𣶒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큰 물줄기가 작은 하천이 되어 뿔어 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永자는 물줄기가 멀리 뿔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길다'나 '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𣶒

갑골문

𣶒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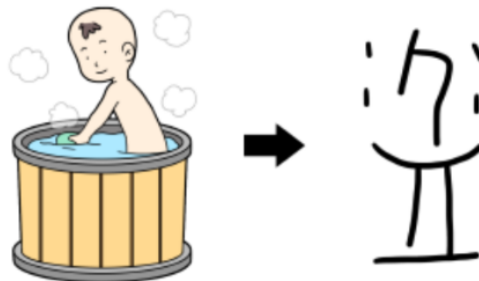
𣶒

소전

永

해서

회의문자 ①



溫

따뜻할
온

溫자는 '따뜻하다'나 '데우다', '온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溫자는 水(물 수)자와 冫(가
둘 수)자, 皿(그릇 명)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溫자의 갑골문을 보면 수증기가 올라오
는 큰 대야에서 몸을 씻고 있는 사람이 𣶒 그려져 있었다. 후에 글자가 바뀌면서 수증기는
水자가 되었고 대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冫자와 皿자로 표현되었다. 그러니 溫자는 글자의
조합만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𣶒

갑골문

溫

소전

溫

해서